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천교회)
 윤치현(최우영), 김성중(윤현영), 이필래, 문수경, 김경상(김해숙), 김경열(손정아), 김광호, 김기안(하세련), 김재현(이종문), 김재현(이강우), 김종선(박영숙), 김준구, 김진호, 김창길, 김춘화, 김현구(서재희), 김현숙, 박금영, 박부웅(최귀관), 박수운(이승애), 박순자, 박혜진, 방석재(차옥자), 백근구(윤 숙), 백성진(안지영), 석재아, 석형기(이희순B), 성미영, 신대균(유미란), 오영순, 유승웅(강민지), 유은자, 유원호(이영미), 유정민(민옥희), 윤영준(박진숙), 윤예민, 이근자, 이선미, 이옥남, 이찬호, 이태일(송백현), 이희환(오희정), 최경식(심순숙), 정두순, 주성탁(허수진), 채만기(장은우), 채하춘(황영옥), 최성진(윤정자), 최정현, 황건웅(이유숙), 황성근(홍국옥)(총51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령교회)
 김성종(유현영), 이필래, 김경삼(김해숙), 김명중(이종문), 김병을(이영숙), 김준구(이소은),
 김지한(유성재), 김진희, 김태준(박복순), 김태준, 김현철, 방석대, 박성현(안지영), 석애자,
 유지란, 유은자, 윤숙, 윤순한(민옥희), 이근자, 이선미, 이찬호, 이태일(송백현),
 정기성(심순옥), 정옥순, 채만기(장은주), 최정희, 하세련, 무명.(총28명)

◆ 감사헌금
 김병욱(이명숙), 김외자, 김현구(서재희), 김희규, 박부웅(최귀남), 박영식(성미영), 박은숙, 박종삼(이명련), 박희영, 방석대(차옥자), 백성원(안지영), 석형기(이희순B), 신세균(유미란), 유승동, 유승한(전옥희), 이명희, 이순철(강복식), 이승애, 이춘취, 이태훈(지명훈), 임영득, 정승민(박혜진), 진병구(이인숙), 채영업, 허봉선, 황영록, 기복초원, 무명.(총28명)

♠ 일천번제한금

[illegible]

♠ 월정한금

김원재, 유일환, 이영숙B.(총3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14주: 에스겔 31장 1절 ~ 34장 31절			
주 일	에스겔 31장 1 - 18절		
월요일	에스겔 32장 1 - 16절	목요일	에스겔 33장 21 - 33절
화요일	에스겔 32장 17 - 32절	금요일	에스겔 34장 1 - 16절
수요일	에스겔 33장 1 - 20절	토요일	에스겔 34장 17 - 31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준 방석태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욱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김성중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 위 자	할 벨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해운
		피아노	김민지 김미희 유광희 주혜정 정해지 공희라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트	김안나 박예은 조상현 고광훈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철 이성욱 미 국: 김다니엘 미 국: 최옥희	이집트: 김신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옥 A X 국: 박동권 김명화
	협력선교사	태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흥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도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도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6. 3. 27 주일 예배 설교

엠마오 상의 두 제자

설교: 이진우 목사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부활생명 선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사실 더욱 확실히 증거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하신 날 오후 저녁 무렵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길가는 두 사람과의 대화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따른 깊은 실의에 빠져 있었으며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열두 사도 중에는 들지 않았지만 한때 예수님을 환호하며 추종했던 사람들 중 핵심인물이었습니다. 여기 두 제자는 예수님의 메시야되심에 대한 의미를 착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이제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져 버림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대화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슬픔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쳤나니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의 세력 아래서 신봉하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말과 일에 능한 선 선지자”(19절) 혹은 “이스라엘의 구속 자”(21절)로 알았지만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3.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 하셨습니다.

본문 32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 무렵에 두 제자가 맥아모로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동행하며 대화하였으나 예수님을 몰랐고, 저녁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잘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향이 같지 아니하나.”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들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감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밝히더라.”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뵈고 다시 힘을 얻어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좌절과 실의에 빠져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
으로 어떤 영적인 상태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이들로 실패하고 결국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바로 보며 바
로 깨달아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4. 부활의 주님이 남긴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에 잠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밝고 가슴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했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참된 소망을 얻습니다. 세상이 썩어질고 사라질 소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 더욱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켜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SINCE 1975

No. 42 – 14

2016. 4. 3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은혜위에 은혜러라” [요한복음 1장 1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이 진 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순서 4월	1부		3부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기도	기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도	기도	기도
1주(3일)	채만기 집사	윤병호 장로	전순봉 권사	윤정호 장로	오택현 집사	유미란 권사	
2주(10일)	유승용 집사	김병복 장로	임영덕 권사	방석태 장로	박순자 권사	배숙자 권사	
3주(17일)	유영준 집사	강영선 장로	심순옥 권사	배경철 장로	방원식 집사	최귀남 권사	
4주(24일)	박권제 집사	최기훈 장로	김해숙 권사	임만순 장로	박종삼 집사	서재희 권사	
예배안내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